

## 구역본 성경전서(1911)의 번역, 출판, 반포의 역사적 의미

옥성득 (UCLA, 한국기독교 석좌 교수)

### 서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번역의 종교이다. 이슬람교가 아랍어를 기록한 언어로 여기고 코란의 번역을 금지하는 근본주의를 고수하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의 성경은 한 지역의 본토말로 토착화되는 번역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며, 이 성육신의 원리는 기독교 선교의 첫째 원리가 된다. 예수는 한 지역의 말과 문화로 번역되고 육화하면서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인간의 죄악성에 도전하는 새 언어와 대안 문화를 창출하는 수직성을 지향한다.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은 번역된 예수의 모습들이 함께 모여 종말의 우주적 그리스도는 완성되어 간다.

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반포하는 복음전도 기관이다. 성경의 번역, 출판, 반포는 편의상 분리된 세 가지 사업이지만 실상은 연결된 하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적인 성서 사업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신다.

1910년 4월 2일 전주에서 구약 번역자회를 책임지고 있던 레널즈(William D. Reynolds)는 서울의 밀러(Hugh Miller) 총무에게 “번역 다 되었소”라는 전보를 보냈다.<sup>1)</sup>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30년 만에 구약전서 번역이 완성되고, 이듬해 3월 첫 한글 구약전서가 출판되었다. 1882년 첫 복음서와 1887년 로스본 첫 신약전서 《예수성경전서》가 만주 심양에서 발간된 후, 1906년에 성서위원회 공인본 《신약전서》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되었고, 위원회 임시본인 구약전서가 1910년 4월에 완역되면서, 1910년 말에 인쇄에 들어가 1911년 3월 《성경전서》(구역본, 구약 2,650면 신약 774면, 천연색 지도 포함)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20,000부가 출간되었다.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 네 나라 사람의 합작품이었다. 한글 신약전서, 한문 성경, 혹은 구약 단권 성경만 읽던 한국 개신교회는 1911년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한 성서를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1911년 5월 성서주일에 모든 한국 개신교회는 성경전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오늘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는 구역본 《성경전서》는 한글 최초의 성경전서로서 1938년 개역본 《성경전서》가 출판될 때까지 일제 식민지 시대 한국 개신교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11년 《성경전서》의 번역, 출판, 반포의 역사는 이미 필자가 공저한 《대한성서공회사》 1,2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 역사를 새로 발굴한 자료로 보완하면서, 이 세 분야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성경의 번역, 출판, 반포의 역사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첫 회년(1960) 때의 역사 인식과 문제의식도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이용되지 않았던 1910년대 <기독신보>에 실린 성서공회 기사와 광고들을 통해 공회가 일반 독자와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려고 했는지도 분석하려고 한다. 번역 사업은 개신교 한글 성경 번역이 시작된 1876년부터 성경전서가 완역된 1910년까지를 다루고, 출판과 반포 사업은 성경전서 발간 이전과 함께 발간 이후 첫 10년간인 1911년부터 1920년까지를 주로 다루려고 한다.

1) 밀러 총무는 4월 4일 레널즈에게 성경 번역 완성 축하 전보를 보내면서 그와 남장로회 선교회에 감사했다.

## 1. 《성경전서》(1911)의 번역 과정과 번역 특징

### 번역 과정: 레널즈의 시기 구분을 중심으로

레널즈는 성경전서를 완역했을 뿐만 아니라 1911년까지 한글 성경 번역사를 정리하고 그 시기를 구분한 장본인으로, 후대 사가들은 대개 그의 시기 구분을 수용하고 있다.<sup>2)</sup> 레널즈의 시기 구분을 검토하면서 번역 과정을 살펴보자. 1906년 신약전서 공인본이 출판되자 레널즈는 번역사를 다음과 같이 해외 번역기와 국내 번역기로 나누어 정리했다.<sup>3)</sup>

- I. 국외: 1. 만주의 로스, 1875-1889
  - 2. 일본의 이수정, 1883-1885
- II. 국내: 1. 예비기: 여러 위원회와 개인적 준비, 1887-1893
  - 2. 번역자회 번역
    - 1) 지나친 조직의 시기, 1893-1896
    - 2) 방법의 단순화와 급속 출판 시기, 1897-1902
    - 3) 재조직: 새 정관, 노력의 집중, 지속적인 번역자 독회, 1902-1906

레널즈는 로스의 번역 시작 시점을 1875년으로, 그 종결 시점을 1889년으로 보았다. 로스가 한국인을 처음 만나 한국어를 배운 해가 1875년이었고, 신약전서가 완역되어 출판된 해가 1889년이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로스가 이응찬을 고용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은 1876년이고, 1877년 《Corean Primer》를 발간한 후 복음서 번역에 들어갔으며, 번역을 완성한 시점은 1886년이었다.

1893년 상임성서위원회가 재조직되고 공식번역자회가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국내 번역이 시작되었다. 번역자회 1회 모임이 1893년 10월 11일에 열렸을 때 번역자는 언더우드(회장), 게일, 아펜젤러, 스크랜턴(서기) 등 4명이었다. 첫 3년간 개인역, 이를 수정한 임시역, 번역자회 번역의 세 가지 본문을 만드는 신중한 과정으로 번역이 지연되고 한국교회의 성경 요구가 급증하자, 1897년부터 두 번째 임시역을 없애고 번역 방법을 두 단계로 줄이면서, 번역에 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1897년에 골로새서, 베드로전후서, 1898년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가 출판되었고, 나머지가 1900년에 출판되었다. 번역의 저본은 영어 개역본(RV)의 저본인 그리스어 본문, 곧 1882년 옥스퍼드판 그리스어신약이었다. 1900년에 출판된 국내 첫 신약전서는 서신서의 경우 대부분 개인역이었으므로 번역자회의 ‘임시본’은 1904년에 완성된다.

1900년 후반부터 1902년까지 번역자들의 안식년 휴가로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2년 봄 신약 후반부의 개인역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6월 아펜젤러의 사망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1902년 말까지, 곧 번역자회 조직 10년 동안 4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개정 본문이 출판되었다.<sup>4)</sup> 1904년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의 세 성서공회가

2) 참고,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특히 성서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 문화》(기독교문사, 1985), 409-505. 이 논문은 초기 한글 성경 번역사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3) W. D. Reynolds,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Korea Review* (1906): 165-180.

4) G. H. Jones, "Translating the Bible in Korea," *Worldwide Missions* (May 1903): 4.

한국에 연합지부를 설치하고 여러 선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성서사업은 초교파적인 연합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아펜젤러를 대신해 남장로회의 레널즈가 1902년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여 번역에 전념하게 되고, 북장로회가 서울의 언더우드와 게일에게 신약 번역을 주 임무로 임명하면서, 신약 공인본 번역이 본격화되었다. 1902년 10월부터 1906년 3월까지 이들은 555회의 독회를 열었다. 1904년에는 신약 절반을 재수정했으며, 1905년에는 서울 감리회출판사에서 수정본을 인쇄했고, 1906년에는 고린도후서까지 공인 본문인 신약전서를 동경에서 출판할 수 있었다.<sup>5)</sup> 번역자회 독회는 주 5일 오전 8:30-12:30에 열렸고 오후 2-4시에 모이는 날도 있었다. 선교사의 개인역을 놓고 한국인 조사 3인과 함께 검토하되, 문제가 없으면 번역자회 본문으로 채택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히브리어, 한문, 일본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영어 성경과 비교하고 사전과 주석을 참고하면서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했다.<sup>6)</sup> 신약전서 공인본은 1906년에 완성되었다.

레널즈는 1911년 성경전서가 출판된 후에 다시 한 번 한글 성경 역사를 정리하면서, 위의 구분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4시기로 구분했다.

1. Efforts from without the Hermit Nation, 1875-1889
2. Individual versions by various missionaries, 1887-1898
3. Production of the Official Board's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1897-1904
4. Authorized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1904-1910<sup>7)</sup>

레널즈가 개인역 시기를 1898년까지로 잡은 것은 1898년에 피터즈(Alexander A. Pieters)의 <시편촬요>가 출간되었기 때문이었다. 1906년의 글에서는 신약전서 완역과 출판의 관점에서 번역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개인역 시기를 1893년까지로 잡았으나, 1911년 성경전서 완역과 출판의 관점에서 볼 때, 피터즈의 시편은 첫 구약 책의 번역, 출판이었으므로 시기 구분을 수정했다.<sup>8)</sup> 동시에 신약 번역이 1906년까지 계속되었지만, 그보다 1904년부터 번역자회가 구약 번역에 착수했으므로, 1904년부터 1910년까지를 번역자회가 구약의 공인 본문을 번역한 시기로 보았다.

레널즈가 정리한 구약 번역 과정을 보자. 구약은 1904년 10월에 새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시편과 창세기(언더우드)와 사무엘서(게일) 일부가 번역되어 있었으므로, 1905년 11월까지 출애굽기 일부분, 민수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잠언, 이사야 일부분 등의 초고를 준비했다. 그러나 언더우드와 게일의 안식년 휴가로 레널즈가 한국인 조사들과 번역에 들어갔다. 원고 통과에 3표가 필요했으므로, 성서위원회는 한국인 조사 이승두와 김정삼을 정식 번역위원으로 임명했다. 1907년 미국성서공회 팩스 총무와 영국성서공회 릿슨

5) 게일에 따르면 1893-1897년에 신약 번역자회 독회에서 하루 평균 7-9절 정도를 완성했으나, 1897-1900년에는 20-27절의 본문을 확정했고, 1900-1904년에는 10절 정도를 수정했다. 신약전서가 7,950절이므로 독회 하루 분량이 10절이라면 신약은 독회에 2년 4개월이 걸리고, 구약전서는 23,150절이므로 동일 속도라면 독회에 14년이 필요하고 1918년에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J. S. Gale to A. J. Brown, January 19, 1904.) 1906년에 완성된 신약 공인 본문에서 게일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시록을 책임졌다.

6)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Korea Mission Field* (April 1906): 103. 신약 독회에서 하루에 6-8절을 확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약은 오전 독회로 40-50절을 번역할 때도 있었다.

7) W. D. Reynolds, "How We Translated the Bible into Korean," *Union Seminary Magazine* XXII (1910-1911): 292-303.

8) 아펜젤러가 1897년에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한 사무엘서 본문 주석은 구약 번역의 시작이었고, 언더우드가 1901년부터 <그리스도신문>에 연재한 창세기 본문 주석은 인쇄된 첫 창세기 번역이었다.

총무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 안을 계속 지지했다. 1908년 1월 전주의 전킨 목사가 사망하자 레널즈는 전주 선교지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레널즈는 전주에서도 동일한 시간을 구약 번역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전주에 갔고, 이승두와 김정삼도 동행했다. 구약은 신약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야기체가 많고, 경험이 쌓인 번역자 3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이었다.<sup>9)</sup> 마침내 1910년 4월 2일 오후 5시에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번역되었다. 게일(James S. Gale)이 번역하고 언더우드가 수정한 예레미야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의 책들을 전주에서 최종 번역했다.

레널즈는 번역 장소, 번역자, 역본(개인역본, 임시역본, 공인역본)의 세 요소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함으로써 번역과 출판 과정, 번역자회 구성, 신약과 구약의 집중 번역 시기를 잘 보여주었다. 다만 출판된 신약전서나 구약전서의 판본 관점에서 본다면, 제1기 만주의 로스역본 《예수성교전서》(1887)의 번역기(1876-1886년), 제2기 서울의 한국성서위원회 임시역본 《신약전서》(1900) 번역기(1887-1900년), 제3기 성서위원회의 공인본 《신약전서》(1906) 번역기(1900-1906년),<sup>10)</sup> 제4기 《구약전서》 번역기(1906-1910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번역의 어려움

1893년부터 번역자회 회장으로서는 한글 성경 번역을 주도해 온 언더우드는 직역론자로, 성경 번역에 대해서 1911년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 작업의 어려운 점은 성경을 가감 없이 온전히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의 표현을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번역자는 사용하려는 언어뿐만 아니라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물론 그 첫 번째 필수사항인데, 성경과 같은 책은 한 구절의 표현, 아니 한 단어의 의미가 수 천 명에 달하는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문의 의미를 해당 언어로 최대한 완벽하게 전달해야 한다.... 번역자회는 수준 높은 문체와 통속적인 문체라는 두 난관 사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지식인들의 마음을 끌 만큼 품위 있는 문체로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했다.<sup>11)</sup>

언더우드는 원어를 철저히 연구한 한국인 학자들이 나오면 이러한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원문이 가진 의미를 그대로 지니면서 한국어답게 관용적 표현하는 ‘직역’을 추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선교사 번역자들이 원문의 의미에 동의했다라도 이를 한국인 조사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할 수 없었다.

9) 1909년 8월 언더우드가 서울에 돌아오고 번역자회 일을 다시 시작할 때 남은 책은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소선지서 10권 등이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책을 번역한 전주의 레널즈와 김정삼은 12월까지 에스겔서를 완성했고, 게일은 1910년 1월에 예레미야서를 완성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와 소선지서 10권을 맡은 언더우드는 백만명구령운동 일로 인해 분주했으므로 스가랴서 10장까지만 번역하고, 나머지는 전주 번역 팀에 넘겼다. 레널즈, 김정삼, 이승두는 넘겨받은 소선지서 전체를 3월에 번역하고 인쇄소에 넘길 최종 원고는 1910년 4월 2일 완성했다. 구약 번역 10년 만이었다. 대부분 레널즈의 손을 거쳐 번역되었지만, 창세기와 시편은 언더우드가 주로 번역했고, 스가랴 초고 번역과 예레미야 수정에는 언더우드가 참여했다.

10) 1906년판 구약(舊譯) 《신약전서》가 첫 공인본 신약전서였다. 한국에 선교사가 온 지 21년 만의 일로서, 이는 일본에서 걸린 시간과 같았다.

11) H. G. Underwood, "Bible Translation"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11): 296-297. (옥성득 이만열, 《언더우드 자료집 4》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9], 293-295.)

한국어에는 이 추상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을 만들거나 그림과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의미를 상당 부분 이해했을 때에도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딱딱한 고어체인 한자식 한국어로 표현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동양 학자들의 고질적인 성향이었고, 충분히 명료하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흔히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는 복음서의 서너 절을 번역하는 데 때때로 하루 종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먼저 원문의 의미에 대해서 번역자들 사이에 토론하고, 그 후에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과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토의하고 논쟁했다.<sup>12)</sup>

선교사 번역자들과 한국인 번역조사들은 원어와 한국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의 번역조사들은 과거 심양의 로스의 조사들과 달리 한문에 능한 학자들이었으므로 자연히 번역자회 역본은 한문 용어가 증가했다. 번역자들 간의 번역 이론 논쟁, 혹은 “가감 없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긴다.”는 ‘직역’의 의미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1916년 언더우드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23년에 게일은 번역자회를 사임하게 된다.<sup>13)</sup>

게일은 1909년 신약전서가 완성된 후 이를 회고하면서, 1세기 유대-그리스-로마 문화에서 기록된 헬라어 신약 본문을 한문 문화권에 있던 19세기말 20세기 초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뉴욕의 60층 생명보험회사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큰 공사로 1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정리했다. 그는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간의 끝없는 필요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파는 일보다 더 힘들다고 평가했다.<sup>14)</sup> 게일은 한국(구)어가 복음서 번역에 더 맞는 언어라고 생각했다.

한국어는 단순한 말로서, 고정된 법칙과 출판된 문헌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영어와 다르다. 한국어는 복음서 시대에 속한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반면에 복음서는 한국어로 아름답게 진술된다. 한국어는 삶의 단순한 일상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지만, 경어법과 한자어로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다.<sup>15)</sup>

따라서 예수의 생애와 일화와 비유를 담은 복음서는 구어체로 번역하고, 바울의 교리가 집중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자연히 문어체로 번역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까지 성경 번역은, 조선 시대 문어체와 한문 어휘에 매여 있던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20세기 초 구어체를 포함하는 근대 언어로 발전, 재편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번역자들은 조선 시대에 출간된 언해본의 한글 어휘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민중의 입말(구어)을 배우고 정리하여 성경 언어로 수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게일은 1910년 6월 연례보고서에서 성경 완역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우리는 여러 해의 사역의 결과인 간단한 한글로 된 성경전서가 출간되기를 기다린다. 이 작업

12) Ibid. 298.

13) 게일은 직역은 원문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므로 “Good Morning”을 “좋은 아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James S. Gale, "Bible Translation," *Korea Mission Field* [Jan. 1917]: 7.)

14)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s and Canada, 1909), 175.

15) Ibid., 21-22.

에 참여해 보지 않은 자는 그 사역을 짐작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 책 전체에는 약 1백만 7천 개의 음절이 있다. 이것을 세 번씩 읽고 검토하고 반복하고 조심스럽게 노트를 하는 것은 눈과 생각을 5백만 번 이상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길고 지루한 과정을 물론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했지만, 사역의 대부분은 두 세 사람에게 떨어졌다.<sup>16)</sup>

레널즈도 1911년 번역의 어려움을 정리하면서,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이 함께 일한 성경전서 작업에서 각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썼다.<sup>17)</sup>

첫째, 미국인 번역자는 무엇보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 이해와 그 번역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레위기의 제사법, 성막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침, 성전의 묘사, 이사야의 예언적 도망, 에스겔의 환상 부분에서 번역자는 현기증을 느꼈고 눈은 침침해 졌고 신경은 탈진되었다.”<sup>18)</sup> 번역자회는 성경의 수 천 개 고유명사 번역에 3주일 보냈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비기독교적인 용어에 세례를 주어 기독교 용어로 만드는 작업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죄’(sin)는 처벌을 받는 형법상의 ‘범죄’(crime)의 뜻이며, ‘사랑’은 높은 자가 아래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다. 번역자들은 “한국어와 같이 빈약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무척 힘들다. 특히 한국어에는 믿음, 소망, 사랑, 거룩함, 은혜, 진리, 영생 등과 단어들 없다.”고 보고했다.<sup>19)</sup> 그들은 구속(救贖)이나 칭의(稱義)와 같은 성경의 핵심 단어들도 한문 글자를 조합하여 새로 만들어야 했다.<sup>20)</sup>

둘째, 한국인 번역조사의 어려움은 정해진 시간에 오기, 계속 주의를 집중하기, 본문의 의미 파악, 적절한 동등어 선택, 외국인의 손에 의해 과격하게 왜곡되는 한국어 지키기, 이탈자 없이 필사하기, 띄어쓰기와 맞춤법대로 쓰기 등이었다. 특히 원고의 정확한 필사본을 여러 부 정서하는 일은 한국인 조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셋째, 1910년까지 가장 논쟁이 된 점은 신명 용어 문제였다. 로스는 한국 종교의 ‘하느님’(혹은 ‘하나님’)이 성경의 ‘엘로힘’과 동일하다는 열린 타종교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sup>21)</sup> 로스는 예수교의 새로운 ‘God’를 한국인이 섬겨온 고유의 ‘하나님’(하느님)으로 번역함으로써 한국 영성사에 대전환점을 찍었다. 한국인의 ‘하느님’이 히브리인의 ‘엘로힘’, 그리스인의 ‘테오스’, 영미인의 ‘God’와 연속성을 지닌다는 이 과격한 주장은 ‘하나님’이 선교사의 가방에 들려 한반도에 수입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국인과 함께 계시고 한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고백이었다. 로스는 ‘하늘에 계신 주’로서의 ‘하나님’이 도교의 조화용인 ‘상제’나 ‘천로야’와 원시 유교의 주재자요 유일신인 ‘상제’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순 한글이므로 더 나은 용어로 보았다. 로스가 ‘상제’나 ‘천주’나 ‘신’ 대신 ‘하나님’을 채택함으로써 이

16) J. S. Gale, "Personal Annual Report, June 1910"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Correspondence and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Microfilm reel #285, vol. 244.)

17) 서울에서 번역된 위원회본 신약전서와 구약전서는 대부분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했다. 일본인 식자공과 인쇄공의 문제는 출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었으므로 출판 사업에서 거론하겠다.

18) Reynolds, "How We Translated the Bible into Korean," 301.

19) "Editorial Report," *BFBS Annual Report for 1903* (London, BFBS, 1903), 446.

20) 그러나 추상이나 개념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 부분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① 새로운 용어 조합, ② 다른 종교(특히 불교)의 언어 차용, ③ 일본어나 한문 성경의 용어 차용 등 세 방법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 학문과 연관된 용어가 대부분 일본 번역어를 수용하는 방향을 취했다면, 많은 종교적 용어들은 한문 성경이 채용한 불교 용어를 한글 성경에서도 사용했다. 불교적 용어의 예를 들면 죄, 중생, 구원, 심판, 천당, 지옥, 자비 등이다.

21) 로스는 유교와 도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한 조상 제사 의례 지지(그러나 중국 전체 선교대회에 반대 결정을 따라 제사를 금지함), 민기 전에 일부다처를 가진 자의 세례 허용 등 관용적인 선교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열린 선교 정책은 동아시아 종교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

후 한국 개신교는 용어논쟁을 거친 후 ‘하느님’을 공인 용어로 사용하게 된다. 천주교의 프랑스 신부들은 민간 신앙의 ‘하늘님’을 알고 있었지만 보수적인 신학 때문에 이를 미신적인 기도의 대상으로 간주했다.<sup>22)</sup> 그러나 로스는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진보적 복음주의와 19세기 말에 발전하던 성취론을 수용하고 있었으므로 동아시아 종교의 부분적인 계시와 진리를 수용했다. 한국의 선교사 번역자들(게일, 헐버트, 존스)은 로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느님’의 어원에 ‘하나’(유일성과 위대성)가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 고유의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고 유일하신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창했다. 동시에 이들(헐버트, 게일, 언더우드, 레널즈)은 단군 신화에서 ‘하느님’ 사상의 뿌리를 찾아내고 단군 이후 한국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온 일신론자였다고 주장했다.<sup>23)</sup>

이런 난관들과 개인역 단계에서의 지연과 40년이 지나도 성경전서를 완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번역자회는 마태복음 공동 독회를 시작한 지 7년 반 만에 신약전서 공인 역본을 완성했고, 구약전서는 5년 만에 완성했다.<sup>24)</sup> 게일의 말처럼 번역자들은 “성경 번역의 성업에 미력을 바쳤다는 것을 최상의 특권”으로 간주했다.<sup>25)</sup>

### 번역의 특징과 한글 성경 완역의 의미

1911년까지 번역, 출판된 한글 신약전서와 구약전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성서가 번역되기 시작했다.<sup>26)</sup> 심양과 요코하마에서 1882년부터 출판된 복음서가 국내에 유입되어 반포되었다. 한국 개신교는 국경과 변경을 넘는 한글 성서의 번역과 반포로 시작되었고, 주변부(의주)에서 중심부(서울)로, 밭(사농공상의 신분 사회에서 상인과 남존여비 성차별 사회에서 여자)에서 위로, 안(개인 변화)에서 밖(사회 개혁)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을 지니게 되었다. 만주에서 신약전서가 번역 출판되고 북한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초기 선교는 북한 지역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해방 이전까지 북한 지역(평안도와 황해도) 교회가 개신교의 주류가 되었다. 1910년 이전 초기 한국 교회는 미국, 영국, 중국 개신교라는 세 외부 요소가 한국적 요소와 결합되면서 구형되었는데, 성경 사업은 이 네 요소의 결합 양상, 특히 중국(만주) 개신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둘째, 순 한글의 채택이다. 로스역본 신약전서는 순 한글을 사용했는데,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민중의 일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로스의 번역 원칙 때문이었다. 로스는 의주 상인들에게 번역 원고를 읽어보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수정했다. 로스 번역 팀에 의해 채택되었고 서울 번역자회에 의해 정책적으로 채용된 한글은 한국 종교의 민주화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로스의 서울말 채택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번역자들이 의주 출신이 많아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채택된 것은 서울 선교사들이 로스역본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 번역자들의 경우 양반 출신의 한국인들을 조사로 채용함으로써 문자나 한문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구역본의 약점이었다.

셋째, 로스부터 한글 성경 번역자들은 중국어(한문 문리본) 성경과 영어(개역본) 성경 외에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성경을 참고하되, 최신 사본 연구 결과가 반영된 그리스

22) S. Féron,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불한사전, 필사본, 186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영인본), 59.

23) Oak Sung-Deuk, "North American Missionaries' Understanding of the Tan'gun and Kija Myths of Korea," *Acta Koreana* 5:1 (January 2002): 51-73.

24) Reynolds, "'How We Translated the Bible into Korean," 302.

25) Gale, *Korea in Transition*,

26) 김양선, “성서번역완성 50주년기념 한글성서번역 사진” <성서한국> 6-2 (1960년 2월): 5.

어 신약(Palmer's edition)과 히브리어 성경을 저본으로 채택했다.<sup>27)</sup>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듯이, 한글 성경 번역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나 영어, 한문, 일본어 성경에 뒤지지 않는 좋은 번역 성경을 만들 수 있었다.

넷째, 번역 방법과 원칙에서 로스의 의역과 직역의 조화, 언더우드의 직역 원칙과 천주교 한글 연구 성과 수용, 게일의 한국어 용례에 맞는 줄인 번역과 의역, 레널즈의 문학적 번역이 종합되었다. 초기 한글 성경은 언더우드의 직역 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다양한 번역 이론과 방법을 수용함으로써 한 권의 연합 성경이 추구할 모델을 수립했다. 곧 구역 성경전서는 직역에 의역을 가미한 유연한 번역이었다. 동시에 다양한 다른 번역본이 공존하지 않는 상황적 요인과 1910년대 후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 등으로 언더우드의 직역 원칙은 이후 한글 성경 번역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다.

다섯째, 철자법의 표준화와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로스는 서울에서 출판된 유교 경전의 한글 번역을 참고하는 등 철자법 표준화에 고심했는데, 그 한 예가 사라진 음가인 아래 아(·)의 표기를 줄인 것이었다. 그 결과 ‘하느님’을 1882년에는 ‘하느님’으로 했으나 1883년부터는 ‘하나님’으로 수정 표기했다. 1902-1903년 게일과 이창직은 새 철자법(Gale System)을 제안했다. “한 음에 한 글자 원칙”으로 내용은 다음 세 가지였다. 1) 아래 아 ‘·’를 폐기하고 ‘ㅏ’로 대체한다. 2) 목적격의 아래 아는 ‘ㅡ’로 바꾼다. (예, 를 → 를) 3) ㅅ, ㅈ, ㅊ + 복모음은 단모음으로 변경한다. (예, 자, 다, 즈 → 자) 이를 적용하면 인쇄 활자를 170개에서 140개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서북 방언을 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게일 철자법을 강하게 거부한 북한 지역 교인들의 반대로 게일 철자법은 성경에 채택되지 않았고, 1904년 성서위원회는 구철자로 회귀했다. 그 결과 1904년 일본에서 출판된 신약전서는 신 철자로 된 원고를 구 철자 원고로 필사하는 과정, 일본에서 교정, 인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자가 발생했고, 교정 책임자 켄뮤어 총무는 신경쇠약에 걸려 사임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개역 성경전서(1938)까지 한글 성경은 아래 아가 있는 구 철자법을 고수했는데, 이는 서북 교회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게일, 앵겔, 베어드, 헐버트와 한석진, 김홍경, 김필수, 주시경 등은 한글 맞춤법 근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 게일과 주시경 등은 1904년부터 한글의 가로쓰기도 주장했다.<sup>28)</sup> 1909년 게일, 주시경, 안 신부, 다카하시 토루(高橋亨) 등은 한어연구회를 조직한 데서 보듯이,<sup>29)</sup> 게일과 ‘한글 연구의 왕’ 주시경은 한글 연구와 철자 개혁에 동역했다.

여섯째, 언더우드와 게일은 번역 과정에서 <그리스도신문>을 발간하고, 영한사전, 한

27) 로스의 진보적인 신학은 옥스퍼드대학교 중국학 교수 레그(James Legge)와 교류하고, 1882년에 최신 사본 학과 성서비평을 반영한 그리스어 개정 신약전서(1881, 옥스퍼드판)를 번역 저본으로 채택하고, 표준 본문의 흠정역(KJV)을 개역한 영어 개역본(RV, 1881)을 참고한 데서도 드러난다. 로스는 한글 번역본이 최신 원문과 영어 개역본의 첫 번역본인 점을 자부하면서 정확한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동시에 비평적 사본 읽기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1882년판 요한복음은 영어 개역본처럼 7장 53절-8장 11절의 간음한 여인 사건을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본문이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지만 신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즉 그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 부분처럼 후대 사본에 첨가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1883년부터 로스 역본이 영국성서공회 지원으로 출판되면서 공회가 ‘표준 본문’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1883년판 요한복음과 1887년의 《예수성교전서》에는 간음한 여인 사건 본문이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로스의 1882년판 요한복음은 한글 성경 역사에서 8장 앞부분의 간음한 여인 사건이 없는 유일한 책이 되었다.

28)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2》(대한성서공회, 1994), 59-64, 80, 117-118, & 145; Ross King, "Western Protestant Missionaries and the Origins of Korean Language Modern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1-3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7-38;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 역사자료집 2: 켄뮤어 서신, 1900-1905》(대한성서공회, 2007).

29) <毎日申報>, 1909년 12월 29일.

영사전, 한국어 문법서를 출판했는데, 이들의 근대 한국어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귀중한 자료들이다.<sup>30)</sup> 이들의 근대 한국어 구어와 문어 어휘의 창조와 정리,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에 대한 기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언더우드와 게일이 1897년부터 편집 간행한 <그리스도신문>은 당대의 구어와 문어를 조화시켜 새로운 한국어를 창출하는 실험장이었고, 이를 통해 성서 번역을 개선해 나갔다. 게일의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만 보더라도, 1897년 초판(1,168면)은 35,000단어를 수록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게일의 이 사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호평했다.

조선 사람들이 이 책을 가졌스면 조선 말들을 똑똑히 비홀터이오 조선 글즈를 엇더케 쓰느지도 알터이니 엇지 조선에 큰 스업이 아니리오 조선 사람은 몇 천년을 살면서 자기 나라 말도 규모 잇게 비호지 못흐였는디 이 미국 교사가 이 책을 만드릿스즉 엇지 고맙지 아니 흐리요<sup>31)</sup>

게일의 사전은 1911년 제2판(1,113면)에서 수록 어휘를 50,000단어로 늘렸다. 성경 번역의 진행 속도와 근대 한글 어휘 증가 속도가 비례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번역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한국어, 한국 문학, 한국 문화, 한국 종교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번역자회 선교사들--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존스, 트롤로프, 레널즈 등--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 선교사가 되었다. 이들은 근대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들이었으며, 이들의 개척적인 한국학 연구는 1920년대 문화 민족주의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번역 초기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의 세 성서공회가 참여하였고, 1919년까지 한국의 성서 사업은 세 공회의 연합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가 연합으로 번역하는 성서위원회를 조직했으며, 하나의 성경 역본이 사용되었다. 1904년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세 공회가 한국 연합지부를 조직함으로써 연합 운동의 물꼬를 열었고, 1905년 9월 하나의 '대한예수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가 조직되었다. 공회 총무인 휴 밀러가 공의회의 부회장을 거쳐 1919년 회장으로 활동한 것은 성경 사업과 공회가 한국 교회 일치와 연합의 중심에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 2. 《성경전서》의 출판과 광고, 1911-1919

### 신약전서의 출판, 1900-1907

번역자회가 10년간 노력한 끝에 《신약전서》 10,000부가 1900년 7월에 출판되었다. 신약전서가 나오기를 가뭄에 비 기다리듯이 고대하던 한국 교회에 말씀의 단비가 쏟아졌다. 1900년 전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기갈을 해결한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급성장했다.<sup>32)</sup> 1902년부터 신약전서 판매가는 종이표지가 150전, 형겔표지가 250전으로 생산가의 1/3로 인하했다. 한국인의 극심한 가난을 고려한 이 결정으로 잠시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일본은행의 개입 등으로 한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다.

30) 참고 이상현,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 <동방학지> 151 (2010년 9월): 223-278.

31) “잡보,” <독립신문>, 1897년 4월 24일.

32) 1900년-1902년 서울 북부의 중부 지방에 가뭄으로 대기근이 발생하였고, 이는 화전민과 부랑패의 증가, 하와이 이민 바람, 교회를 빙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교폐 사건의 빈발 등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해서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교인 증가로 인해 신약전서 수요가 급증하자, 1904년 켄뮤어 총무는 이를 만족시키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일본에 가서 신약전서 인쇄와 교정을 책임졌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우편업무의 비정상, 한글을 모르는 일본인 식자공이 기-긔, 지-거, ㄱ-ㄱ, ㄴ-ㄴ, ㅅ-ㅅ 등 비슷한 글자들의 혼용, 선교회들의 요구로 번역자회가 개정철자를 포기하고 구 철자법으로 돌아가면서 혼동을 일으켜 개정 이전의 옛 본문을 제공한 점, 켄뮤어의 한글 실력과 교정 전문성 부족 등으로 1904년 12월에 출판된 신약전서는 1,000개가 넘는 오류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의 뜻”(the will of God)이 “하느님의 딸”(the daughter of God)로 인쇄되었다. 책임이 켄뮤어에게 돌아가자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 1905년 한국을 떠나 은퇴하고 말았다. 그 후임 총무에는 밀러(Hugh Miller)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오자가 많고(번역자회가 2주일간 작성한 정오표 첨부로 해결) 두꺼운(785쪽) 신약전서를 가뭇에 단비처럼 환영했다. 1900년 6월 이후 3년간 신약전서는 22,000부가 팔렸는데, 1905년에는 6개월 만에 신약 15,000부가 매진되었다,<sup>33)</sup> 1906년판 공인역 신약전서(825면)는 20,000부를 발행했지만, 연말까지 거의 매진되어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1907년에도 신약전서(718면)를 다시 출판했다. 러일전쟁과 국권 상실 속에서 출판된 이 신약전서를 집에서 읽고 사경회에서 상고하면서 1907년 부흥의 물결이 한국교회를 휩쓸었다. 성경 공부의 기반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한편 1906년 4월에 출판된 20,000부의 국한문 신약(上帝판)은 한문에 익숙한 식자층들을 위한 맞춤 성경으로, 고종 황제에게도 헌정되었다.

### 성경전서 출판과 그 의미, 1911

번역자회의 첫 임시본 구약 단권 성경인 <창세기>와 <시편> 각 25,000부를 1906년 말에 출간했던 일본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에서 1911년(명치 44년) 초부터 인쇄한 성경전서가 3월에 서울에 도착했다.<sup>34)</sup> 판본의 종류는 소활자 단권, 중활자 2권 1질, 대활자 3권 1질 등 세 가지였다. 노년층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4호 활자(대활자)로 장정한 판본은 영국 성서공회 한국지부 밀러 총무와 미국성서공회 한국지부 벙커를 발행인으로 하여 각각 10,000부씩 출판했는데, 부피가 2,650페이지나 되어 상하 두 권으로 인쇄했고, 1906년 완성된 공인본 신약전서와 함께 제본하였으므로 4호 활자 성경전서는 3권 1질로 출판되었다.

이 성경은 1938, 1956년에 출간된 개역본 성경전서와 대비해 구역본 성경전서로 부른다. 구역본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한국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번역회장 언더우드의 직역 원칙하에 레널즈와 게일의 문학적 번역이 가미된 번역이었으므로, 직역에 더 충실한 개역본(1938)보다 유려한 번역이었다. 1911년에 출판된 구역본 성경전서는 아름다운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좋은 향아리와 뒤주가 되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한국 교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 복음화를 위한 최대의 도구가 되었다.

한편 신약전서 국한문 (1906)과 달리 한글 구약전서가 완성되었으나 지식인층을 겨냥한 국한문 성경전서는 바로 발행되지 않았다. 구약의 작업량도 문제였지만, 한문 성경전서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전서 전체가 국한문으로 나온 것은 1926년에 발행된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가 처음이었다. 이와 달리 1910년 동양선교회가 편집한 《부표관주신약전서》 10,000부 출판에 이어 성서위원회의 공인본 《신약전서관주》

33) 1904년 판 신약전서는 종이표지, 연한 천, 꺼끄러기 천, 가죽 표지 등 4가지 종류 판본으로 출판되었다.

34) "Notes and Personals," *Korea Mission Field* (March 1911): 66.

20,000부가 1912년에 발행되어 성경 공부에 도움을 주었다.

1911년 성경전서의 출판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독교화된 한글 (한글의 救贖)<sup>35)</sup>: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토 토박이말로 육화하는 소통 작업이다. 한글 성경은 입말(구어)로만 살던 인구의 90% 이상의 문맹에게 ‘언문’으로 천대받던 한글을 발굴하여 당당한 민중의 글말(문어)로 만들어 주었다. 이광수의 말처럼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였다.<sup>36)</sup> 성경 문자로서의 한글 채택은 한국인의 삶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언어의 성화와 언어의 복음화를 가져왔다.

둘째, 성경에 흠뻑 젖은 교회<sup>37)</sup>: 한국 초대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 성경을 외우는 교회, 성경을 전하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성경 중심의 교회였다. 전 교인이 1년 1회 이상 모든 일을 멈추고 사경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책별로 깊이 배우고, 주일마다 전체 교인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제도는 한국 교회 특유의 성경 공부 방법, 평신도 훈련, 교회 지도자 육성 방법이었다. 성경 다독, 성경 필사, 성경 암송이 널리 행해져서 복음서 전체를 외우는 자들이 많았다. 1910년대 후반부터 성경연성회, 성경구락부 등이 조직되면서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셋째, 한국을 성서 위에 올려놓는 교회: 성경 번역과 출판은 언어와 교회 변혁을 넘어 민족의 변혁을 가져왔다. 400년간 무시당하던 한글이 먼지를 털고 성경의 옷을 입고 나서자 그 우수성과 편리성과 풍부성은 말씀 전파에 크게 쓰임 받았다. 고상한 한글 경전 문체의 계발은 한글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다양한 표현과 고상한 사상을 담은 한글 어휘의 재발견은 민족 문화 발전의 첫 걸음이 되었다. 나아가 민중 언어가 성경 언어로 격상되면서 민중의 지적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경제적 자립과 신분 해방의 토대가 되었다.<sup>38)</sup> 즉 입말과 글말이 일치하게 되자 한문과 양반층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당시 전 인구의 9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는데, 세례 규칙에 복음서 읽기가 들어가면서, 수 만 명이 넘는 백정과 천민, 수 십 만 명이 넘는 종과 머슴들, 수 백 만 명의 가난한 소작농이나 빈농, 부녀자들이 한글을 익히게 되면서 언문일치의 시대가 열렸다. 1911년 성경전서에는 한글 자모표가 삽입되어 문맹 퇴치 운동에 사용되었다. 또한 교회가 앞장 선 노예제 폐지, 조혼제 금지, 처첩제 금지, 공창제 반대, 여성교육 지지, 남녀평등 지지 등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왔다. 성경을 읽고 자란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10년대의 기독교 학생들--1912년 105인 사건 때 검거된 선천중학교 학생들, 1919년 삼일운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독립의식이 강했다. 맥켄지는 성경을 읽은 세대가 폭정을 만나면 그 세대가 멸절되거나 폭정이 종식된다고 평가했다.<sup>39)</sup>

### <기독신보> 광고와 기사를 통해 본 출판 사업과 성서주일 기념, 1916-1920

35) G. H. Jones, *The Bible in Korea or the Transformation of a Nat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14), 8-9. 이 20페이지의 소책자는 *The Bible Magazine*에 실린 존스의 글을 재인쇄한 것이다.

36) 이광수,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 <청춘> (1919. 7).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외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아마 조선 글과 조선 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은 그릇이 됨은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37) Jones, *The Bible in Korea or the Transformation of a Nation*, 8.

38) Ibid., 4-5.

39) Frederick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York: F. H. Revell, 1920), 50.

1915년 말 <기독신보>가 창간되자 1916년 3월부터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는 주기적인 광고를 통해 신간과 공회 사업을 알리고 교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 첫 광고를 현재 맞춤법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京城 鐘路 대영성서공회 大英聖書公會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사무엘서상하 合編四號字紙衣 정가 6전, 마태복음 단편, 상동, 2전. 이 책은 금년 주일공부에 본과이온바 본 공회의 현존이오니 남녀 모든 교우는 다소간 소용을 따라서 교회 각 책사어나 권서에게나 혹 본 공회로 청구하소서. 운임이나 유료는 본 공회에서 지출하나이다. 이외에 모든 장책의 성서를 구비하였사오며, 교회에서 전도로 원가 5원 이상의 성서를 주문하는데 대하여는 구약과 신약전서에 2할과 모든 단편에 5할을 특별히 허락하나이다.

●광고●

본 공회에서 언한문, 한문, 일문, 영문 성경과 맹인 보는 성서와 기타 외국어 성서를 구비하여 경향을 무론하고 청구하시는 대로 신속히 수송하오며, 일전 운비도 본 공회에서 담당하오니 다소 불구하고 청구하심을 바라옵나이다. 성서 정가록은 청구하시는 대로 무료 송정하겠음. 京城 鐘路, 大美國聖書公會 白.<sup>40)</sup>

영국성서공회는 1916년대 교회 주일학교(전교인 대상) 성경 교재로 사용된 사무엘서와 마가복음을 광고하면서 단체 주문은 50% 할인 혜택을 알렸다. 동시에 두 공회는 우편 주문은 무료 배송임을 강조했다.

1916-17년의 광고에서 계속 다룬 문제는 유럽의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성서사업이었다. 긍정적으로 전쟁은 인류의 영적인 굶주림을 더하여 성경 사업을 증가시켰다.<sup>41)</sup> 영국 공회의 1916년 6월 광고는 군인 대상의 무료 반포 성경이 300만 권에 달했음을 부각시키면서, 전쟁에도 불구하고 교전하는 적국에서도 공회 사업이 중지되지 않은 것은 성경의 가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여차 탁월한 권능이 有한 차 성서를 誠力으로 購覽하시옵소서”라고 권고했다.<sup>42)</sup>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성경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자, 여러 차례 인상을 연기한 두 공회는 공동 광고를 통해 1917년 7월 1일부터 중품 이상의 장정과 성경전서 가격을 50전까지 인상하는 대신, “성서 보급의 주요 목적으로 하품 장책의 신약 급 단편은 一無變更하고 低歇 정가로 依前 酬應하겠나이다”라고 하여 교회의 양해를 구했다.<sup>43)</sup> 1918년 1월부터의 새 광고에서도 공회 경비 지원을 요청했다.<sup>44)</sup> 1918년 10월 두 공회는 연합 광고를 통해 인쇄 재료의 비등으로 10월부터 새 정가로 판매하되 다만 단편 성서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었다고 독자들의 양해를 빌었다. 공회는 1919년 말 다시 한 번 성경 가격을 인상했다. 원래 성서의 정가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으나, 근래에는 원가에 비해 5할 이상이 낙본되므로 부득이 정가를 새로 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조량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sup>45)</sup> 공회의 일방적인 통고가 아니라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한 후 교회의 협조를 구한 광고들이었다.

그러나 정가의 수시 변동으로 인해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918년 3월에는 두 공회와

40) “광고,” <基督申報> 1916년 3월 29일.

41) “대영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18년 1월 9일. 참고 1920년 1월 21일자 광고.

42) “대영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16년 8월 9일.

43) “대영성서공회와 대미국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17년 6월 1일.

44) “대영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18년 1월 9일.

45) “대영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20년 3월 17일.

예수교서회가 함께 일부 부정직한 권서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광고를 실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서적 가격이 변경되고 판매량이 줄어들자 이를 악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회와 사회는 이런 폐단이 발견된 권서에게는 서적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sup>46)</sup>

### 5월 성서주일 기념과 성서사업 인식

1899년 5월부터 매년 5월 첫 주일 (1910년대에는 마지막 주일)은 모든 교회가 성서공회 주일로 지키고 공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연보했다. 각 교회의 성서주일 예배를 위해서 공회와 신문 편집인은 5월 중순 무렵 <기독신보>에 1년간의 성서공회 사업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성경과 공회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회의 자기 인식 혹은 당시 한국교회의 공회와 성서사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916년 성서주일을 맞아 영국성서공회는 “聖書公會의 關係와 機關說”라는 글을 게재하고, 의식주 가운데 성서가 영생의 양식이라면 공회는 영존의 가옥이라고 비유했다. “聖書는 萬民永生의 糧이요 公會는 萬世永存의 基라. 糧을 廢호면 一縷의 命을 何保며 基를 棄하면 六尺의 구가 何歸리오. 糧을 取호야 生호고 基를 擇호야 居호은 人人蓋然이라.”<sup>47)</sup> 음식과 주택은 문화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나, 공회가 출판한 성서의 양식은 만민의 양식이요 공회의 거처는 만국이 함께 건설할 거처이며 모든 시대와 연결된 관계를 가진다고 정리했다.

1917년 5월 홉즈(Thomas Hobbs) 부총무는 영국성서공회 사업 보고에서, 한국에서 성서 사업을 개시한 1881년 이후 지난 36년간 성경 반포 480만 권, 작년 1년간 반포 802,816권, 비용은 72,840원이었으며, 전임 남녀권서는 179인으로 이들의 노력으로 많은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보고했다.<sup>48)</sup>

미국성서공회는 1918년 1월 광고에서 성경의 가치를 강조했다.

大抵 聖書는 하늘의 말씀이라 道德의과 律法的과 政治的과 歷史的과 敎訓的과 哲學的이 包含된 것이니 耶蘇敎 信者만 購讀할 것이 아니요 不信者 敎外人이라도 一次 購覽호면 補益이 頻多홀지라 然호므로 西言에 書籍 中에 第一 貴重함이 寶石 中에 金剛石과 如호다 禧니다.

불신자도 읽으면 다방면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므로, 금강석이 보석에서 가장 귀하듯이 책 중에서 성경이 가장 귀하다고 주장했다.

1918년 5월 초에 두 공회 광고는 성서주일에 대한 내용을 신고, 미증유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적자 7만 원 가량<sup>49)</sup>--공회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 해에는 관례를 깨고 성서주일 예배순서를 각 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이어서 5월 15일 사설은 성서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경은 개인의 심령 배양과 국가의 문명부강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성경은 중대 위기 때 더욱 필요하므로 전쟁 사업은 중요하며, 세계대전 중에 700만권을 반포했다. 현재까지 504개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한국 사업 30년간 400만권 이상을 전파했고, 근래 매년 70-80만 권을 반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sup>50)</sup>

46) 1920년 2월 25일자 <기독신보>에는 경성 남대문역전 普興運輸組(합) 이름으로 “조선야소교서회와 대영성서공회에서 운송물을 본조에 위탁 취급하옵기에 이에 광포하오니 경향 각교회 교우는 더욱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광고가 실렸다.

47) 大英聖書公會, “聖書公會의 關係와 機關說,” <基督申報>, 1916년 5월 10일.

48) 許燁, “대영성서공회사업,” <基督申報>, 1917 5월 23일.

49) “조선 내 성서사업,” <基督申報>, 1918년 5월 22일.

50) “성서 급 전파의 필요,” <基督申報>, 1918년 5월 15일.

1919년 성서주일을 맞아 밀러 총무는 4월 30일 <기독신보> 사설에 “성경 공부의 긴요”라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과거 연설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다음은 그 요약이다.

1. 일반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 물질적 신발명과 과학적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을 방해하지 않는다. 새 학설과 신발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관한 것이다. 일반 학교는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친다. 2. 성경의 제일(齊一): 성경은 건전하고 가지런하며 순결하며 허문이 없다. 선지자나 사도라도 허물과 결점까지 있는 그대로 적었다. 이를 통해 각자 영혼을 찾게 한다. 3. 성경과 인생: 무형한 것과 싸우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제력이다.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제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4. 성경은 각자를 비추는 빛: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절제하는 힘을 얻는다. 5.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한다. 6.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족하지, 밥의 화학적 성분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말씀 그대로 아동에게 줄 것. 암송도 중요하다. 순수한 말씀을 주면, 양식의 소화는 각자 할 수 있다.<sup>51)</sup>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넣어주면 성경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이 변한다는 믿음이 공회 사업의 기초였고, 밀러 총무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성경이 순수한 말씀 그대로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지기를 희망했던 윌슨의 입장을 지지했다.<sup>52)</sup>

### 3. 반포 사업과 권서 활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 개신교회와 선교사들은 성경 자체의 힘을 신뢰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성서를 반포하는 것이 복음화의 첫 걸음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1910년대 성서공회의 반포 사업은 네 가지 방법, 곧 선교사, 서점, 권서, 부인권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권서와 부인권서를 통한 직접 반포로,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sup>53)</sup> 당나귀에 복음 짐을 싣고 마을과 장터를 방문하여 성경을 판매한 행상 매서인 권서들의 발걸음은 전도의 첫 걸음이었다. 권서 사업의 목적은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다.<sup>54)</sup>

#### 성서 반포 통계, 1911-1920

서울 종로에 본부를 둔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는 권서(매서) 제도와 지방의 보급소와 서점을 통해 1910-1912년 3년간 1,430,491권의 성서를 반포했다. 1914년 미국성서공회는 810권의 성경전서, 7,498권의 신약전서, 450,386권의 단권성서를 합해 총

51) 민휴, “성경 공부의 긴요” <基督申報>, 1919년 4월 30일.

52)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1919년 삼일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점에서, 밀러의 이 번역은 우회적으로 삼일운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밀러는 1919년 9월 공의회 회장 자격으로 신임 총독 사이토에게 “조선의 종교적 자유 청원서”를 올려 각종 종교 법규의 개정을 얻어내었다. 밀러의 청원서는 ‘문화 정치’를 구상하던 총독부에 의해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이 청원서의 원문 전체가 최근 필자에 의해 새로 발굴되었다. (참고,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역사자료집 3: 밀러 서신》, 대한성서공회, 2011.)

53) Hugh Miller, "Scripture Distribution," *Korea Mission Field* (Oct. 1911): 283.

54) Jones, *The Bible in Korea or the Transformation of a Nation*, 10.

458,694권의 성서를 반포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배가 늘어난 수치였다. 1910년대 초에 한국 출판의 절반 이상이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문서였다. 또한 이는 개신교 선교 첫 세대에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성경 한 권(낱권 성경 포함)을 주었음을 의미했다.<sup>55)</sup>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1914년-1918년의 5년간은 한글 성경 반포사업의 최전성기였다. 미국성서공회의 반포량을 합하면 이 기간에 연간 성경 반포량이 100만 권을 넘었다. 그러나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연 평균 70만 권 수준에 머물렀다.

[표 1]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의 성경 반포, 1911-1920<sup>56)</sup>

	성경/구약전서	신약전서	단편성경	계
1911	8,236 <sup>57)</sup>	29,417	225,643	263,296
1912	6,987	18,426	158,432	183,845
1913	5,623	26,170	357,608	389,401
1914	2,219	26,152	727,009	755,380
1915	2,047	14,612	809,976	826,635
1916	1,893	27,563	773,360	802,816
1917	2,002	25,565	724,394	751,961
1918	1,735	27,494	575,612	604,841
1919	2,454	23,164	555,782	581,400
1920	1,989	36,759	444,692	483,440
계	34,185	255,322	5,352,508	5,642,015

[표 2]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의 기구별 성경 반포, 1911-1920<sup>58)</sup>

	권서	보급소	부인권서	무급권서	무료배부	계
1911	115,893	136,074	6,717	1,615	2,997	263,296
1912	141,445	31,945	8,884	603	968	183,845
1913	311,278	52,222	24,461	571	869	389,401
1914	661,493	41,664	41,277	9,094	1,582	755,380
1915	707,470	59,893	38,589	20,081	656	826,635
1916	688,294	73,276	38,040	2,340	866	802,816
1917	666,643	40,073	36,278	8,265	702	751,961
1918	519,382	46,614	30,746	6,371	1,728	604,841
1919	507,234	38,579	30,033	4,258	1,296	581,400
1920	405,528	47,910	25,513	3,749	740	483,440

1917년 한 해 동안 영국성서공회는 권서 152명, 부인권서 25명으로 반포 702,921권, 수입 16,513월 33전, 비용 86,110원 53전으로 적자액 69,597원 20전이었는데, 본부 지원과 한국교회 연보로 충당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미국성서공회는 권서 119명, 부인권서 7명

55) Ibid., 5-6.

56) *Annual Reports of the Korea Agency of the BFBS*, 1911-1921; 《대한성서공회사 2》, 272, 293.

57) 구약전서와 성경전서의 기관별 판매는 권서 1,793, 서적상 137, 부인권서, 119, 성서회관 6,097권이었다. (Gerald Bonwick, "The Year's Work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Korea Mission Field* [July 1912]: 212.) 곧 성경전서는 첫째에 대부분 공회의 성서회관이나 공회 서점을 통해 판매되었다. 성경전서의 정가가 1엔(50센트)으로 고가의 책임을 고려할 때, 첫 해에 첫 해에 8,236권을 판매한 것은 성공적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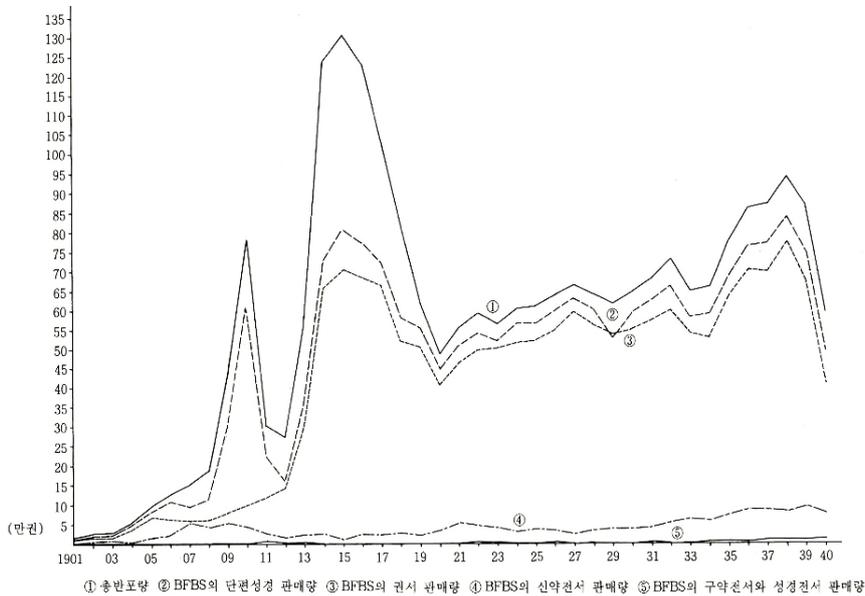
58) *Annual Reports of the Korea Agency of the BFBS*, 1911-1921; 《대한성서공회사 2》, 273, 292.

으로 신구약 713권, 신약 9178권, 단편 등 계 279,161권을 반포하는 실적을 올렸다.<sup>59)</sup> 두 공회는 권서 300 여 명으로 100만 권 이상을 반포했다.<sup>60)</sup>

[표 1]에서 보듯이 1911년에 출판된 성경전서는 1913년까지 매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포한 성서의 95% 정도가 단권성경(쪽복음)으로, 이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값싼 전도용 단권 성경 판매가 반포 사업의 주 내용이었음을 보여준다.<sup>61)</sup> 다음 [표 2]의 통계 역시 권서의 비중을 반증해 준다.

[표 1]과 [표 3]에서 보듯이 권서들의 반포는 1914-16년을 정점으로 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부인권서의 실적도 이 때 급증했다. 그러나 부인권서의 반포는 남자 권서의 5-6% 수준에 머물렀다.

[표 3]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 반포, 1901-1940<sup>62)</sup>



### 권서의 역할: 전도 운동, 한글 운동, 민족 운동

권서와 전도 운동: 교회 개척의 선구자 전도와 교회 개척에 대한 권서의 선구자적 역할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다이너마이트로 암석 깨기’(dynamiting the rock)<sup>63)</sup>나 ‘최전방의 명사수’(sharp shooters on the advanced line)<sup>64)</sup>, 혹은 기독교가 외국 종교라는 편견을 무장 해제하는 자, 선발대, 세례요한<sup>65)</sup> 등에 비유했다. 권서의 신발보다 더 위대한 설교단은 없었다. 권서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성서만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

59) “조선 내 성서사업” <基督申報>, 1918년 5월 22일. 한 해 동안의 반포량은 그 기간에 따라 다른 수치를 보일 수 있다.

60) 성서 100만 권 반포는 1960년에 재현되었다.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피져가는 성서: 성서 반포 100만권을 돌파,” <성서한국> 6-5 [1960년 12월]: 3.)

61) Thomas Hobbs, "The Colporteur as a Preacher," *Korea Mission Field* (Oct. 1916): 273.

62) 《대한성서공회사 2》, 306.

63) Jones, *The Bible in Korea or the Transformation of a Nation*, 10.

64) Hugh Miller, "Scripture Distribution," 283.

65) Hugh Miller, "Colportage," *Korea Mission Field* (May 1914): 137.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싹이 나도록 물을 주고 위해서 기도하며 자라도록 가꾸고 돌보는 자였다. 권서의 믿음과 헌신의 모범이야말로 새 신자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새 삶의 모습이었다.<sup>66)</sup>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권서의 손으로 개척되었다. 장터나 초가집 마당이나 길이나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진 권서의 ‘암석 깨기’나 ‘씨 뿌리기’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는 대부분 전도인, 목사, 선교사의 몫이었다. 권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데 만족하고 다른 마을로 향했다.

1908년 하디 목사는 1896년 이래 12년간 남감리회가 설립한 225개 교회의 대부분이 권서에 의해 개척되었다고 공회에 보고했다. “교회나 기도소가 있는 각 지방은 의례히 귀 공회의 권서가 먼저 복음을 전파한 곳이요, 신도들에게 어떻게 입교한 경력을 물으면 자주 중첩되는 동일한 답어는 다만 귀 공회의 전도인인 모씨가 복음 권한 것입니다.”<sup>67)</sup> 1912년 영국성서공회 베시 부총무의 말처럼 성경은 대부분 권서의 손을 통해 “감옥소, 병원, 나환자촌, 창녀촌, 도박판, 아편소굴, 궁궐, 상점, 산중 사찰, 가난한 초가집, 어부의 거룻배, 뱃사공의 나룻배, 학교와 대학”에까지 들어가서 ‘중생한 자’들을 만들었다.<sup>68)</sup> 전라남도의 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권서의 전도자 역할을 보고했다.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실히 인정하는 바는 권서인 사업의 진취되는 효력이라. 권서인은 곧 교회 성립을 예비하는 기관이니, 금월에도 본인 구역 내에 권서인의 갈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두세 곳이라.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천국을 건설하는 귀 공회의 중요한 임무와 거대한 경비를 협조코자 심질이 동정을 표하노라.<sup>69)</sup>

이러한 권서의 전도 개척자 역할에 대한 보고와 간증은 권서를 감독하던 선교사들의 서신과 보고서에서 계속 등장했다.

[표 4] 권서 통계, 1910-1933 (3년 간격)<sup>70)</sup>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계
	권서	부인권서	권서	부인권서	
1900	21	16	1	0	38
1903	49	20	4	0	73
1906	26	16	-	-	42
1909	102	19	-	-	121
1912	157	33	?	?	190
1915	161	29	90	10	290
1918	144	(20)	57	11	232
1921	131	12	-	-	143
1924	116	8	-	-	124
1927	112	8	-	-	120
1930	102	7	-	-	109
1933	83	3	-	-	86

66) Ibid., 138; W. G. Cram, "The Bible Society as an Evangelistic Agency," *Korea Mission Field* (April 1912): 120.

67) 양주삼 정태웅 편, 《閔休先生實記》(대영성서공회, 1938), 29.

68) F. G. Vesey, "Korean Vignettes," *Bible in the World* (August 1912): 242.

69) 許燁, "대영성서공회사업," <基督申報>, 1917년 5월 23일.

70) 《대한성서공회사 2》, 334-335.

[표 4]에서 보듯이 공회에 고용된 권서는 1909년에 100명을 넘었고, 1915년에 약 300명에 이르러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국성서공회의 경우 1917년에 한국 권서의 수나 반포량은 세계에서 제2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의 권서 사업이 1910년대 중반에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1)</sup> 공회는 증가하는 권서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권서 대회와 권서 총회를 열어 전국 권서에 대한 위로와 교육과 공동체 정신 강화의 시간을 가지고, 권서 시찰원을 두어 순행 감독하게 했다. 권서 시찰원의 한 명이었던 이홍주는 1917년 9월 서울을 출발하여 대구 선교구역의 다섯 고을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출상하신 은혜를 내리사 영남의 유명한 학자들도 다수히 내참하여 도를 듣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 주를 믿기로 작정”한 이도 있었다고 보고했다.<sup>72)</sup>

권서와 한글 운동: 한글의 민중화 한글 운동의 관점에서 1940년 이전 50년간 3대 기독교 운동을 평가하면, 1890-1910년까지 20년간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 운동, 1910년대의 주일학교와 하기아동성경학교 운동, 1920년대-1930년대의 농촌 운동은, 한글을 되살리고 한글을 지키고 한글을 보급하는 기독교 운동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는 민족 종교, 민중 종교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sup>73)</sup>

이러한 기독교와 한글 운동에 대한 이해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권서와 한글 보급 운동이다. 조선 후기에 필사본 한글 소설이나 유교 경전의 언해본이 있었지만 성경은 한국어다운 번역과 대량 인쇄로 인한 저렴한 가격으로 권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단시간에 대량 보급됨으로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되었다. 이로써 성경은 한국인의 첫 근대 서적이 되었으며, 서책의 근대적 보급망이 개척되고, 책 대중화의 시대를 열어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했다. 특히 권서와 부인권서들은 다음 사진에서 보는 한글 자모표를 이용해서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했다.

권서와 민족 운동: 민족 지도자 훈련 권서 사업은 목회의 훈련장이었다. 권서는 불타는 전도꾼들로, 복음 짐을 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돌아다녀야만 했다. 간단한 식사, 불편한 여관 잠자리, 행상에 대한 사람들의 경멸 등을 오래 참고 견뎌야 했다. “그래서 권서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견디려면 튼튼한 육체뿐만 아니라 강인한 성품을 지녀야”<sup>74)</sup> 했다. 전도 현장에서 훈련받은 권서들의 상당수가 전도사와 목사로 성장해 나갔다. 남감리회의 경우 1924년까지 목사 안수자 37명 가운데 15명이 권서 출신이었다. 이들은 대개 세례 받은 지 1-2년 내에 권서가 되었고, 평균 2년 정도 매서 활동을 한 후에 구역장이나 전도사로 활동했고, 권서를 시작한 후 약 10년 안에 집사 목사가 되었다. 어떤 선교회는 한 시점에 권서 출신 목회자가 70%를 넘었다.<sup>75)</sup>

권서는 민중의 고난과 삶의 현장을 체험한 자들이었다. 권서는 쪽복음을 팔면서 일제 수탈 정책의 희생물이 되었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다. 권서는 복음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꾼이었다. 1919년 삼일운동이 발발한 후 일제 경찰은 권서에 대한 검속과 단속을 강화했고 일부 권서는 투옥되기도 했다. 이는 권서 행로가 독립운동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였기 때문이었다. 1907-1910년 의병 전쟁 기간에는 의병으로부터 일본 첩자로 의심받기도 했지만, 1919년

71) Ibid., 336-337.

72) “개인소식” <基督申報>, 1917년 11월 28일.

73) 참고 최상현, “한글 운동에 대하여,” <기독신보>, 1927년 11월 2일

74)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for 1906* (New York: ABS, 1906), 180,

75) 《대한성서공회사 2》, 400-401.

삼일운동 기간에는 일부 권서는 지방의 연락책으로 민족 운동에 참여했다. 일제 10년간의 무단 통치 하에서 민중의 고통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민족의 독립 문제를 고민하던 권서들이야말로 한 지역의 지리와 사정에 누구보다 정통한 자들이었다. 1920년 영국성서공회의 연례보고서를 보자.

한 해 동안 권서 사역은 특별히 어려웠다. 어떤 권서는 ‘독립’ 운동에 연계되었기 때문에 체포되어 경찰의 엄한 조사를 받고 있고, 몇 명은 아직 감옥에 있다. 여러 주 동안 권서 활동은 침체되었다.... 경찰은 이 집 저 집 혹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 사람들을 매우 의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온문서를 퍼뜨리거나 ‘위험한 사상’을 전파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sup>76)</sup>

일본 순사들은 “권서들을 이집 저집으로 따라 다니면서 방문했던 집 사람들에게 왜 성경을 샀느냐”고 물었고 “성경을 사지 않으면 나라에서 더 잘 보아줄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sup>77)</sup> 한국인 권서에 대한 경찰의 방해는 만주에서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권서들은 꾸준히 성경을 반포했고, 투옥되는 권서들로 인해 일반인이 권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따라서 삼일운동 이후 일부 권서들은 해외에서 본격화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모집자나 전달자 역할을 했고, 이는 성경 반포와 독립 운동이 결부된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런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한 권서들의 이름과 활동을 밝히는 작업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다만 《대한성서공회사 2》에서는 확인되는 23명의 명단과 간단한 활동만 정리해 놓았다.<sup>78)</sup> 사도행전적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발’의 복음꾼 권서들은 독립운동의 정보 전달, 군자금 모집 등에 참여한 독립꾼이 되었고, 이근식처럼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 4. 성경 완역 첫 회년(1960)의 역사의식

##### 기념 예배

1960년 4월 성서완역 회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의 인식과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오늘 제2회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1960년 4월 2일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어 성서 완역 회년 기념 예배”를 정동감리교회에서 드렸다.<sup>79)</sup>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설교에서 1910년에 국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구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던 종교사상, 윤리사상, 사회사상, 정치사상”도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전서를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배후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sup>80)</sup> 한경직 목사는 당대 의제였던 민주주의의 기초도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백낙준 총장은 교회 일치, 민족의 통일,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up>81)</sup> 이승만 대통령(4.19의거로 하야)은 치사를 보내고 “일인의 폭정으로 인연해서 우리 한인들은 우리 말과

76) *Annual Report of the BFBS for 1920*, 187; 《대한성서공회사 2》, 402-404.

77)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for 1920*, 343; 《대한성서공회사 2》, 404.

78) 《대한성서공회사 2》, 407-408.

79) 예배는 변홍규의 사회로 기도 마경일, 성경봉독 강홍수, 설교 한경직, 성서번역의 역사 낭독 김양선, 치사 대통령 이승만, 축사 라베생, 맥콤, 백낙준, 축도 김창근 등이 참여했다

80) 한경직, “영영한 기초,”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5.

81) 백낙준, “영원히 켜져 있는 등불,”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8-10.

글까지도 자유로이 하지 못하고 일인에게 갖은 압박을 다 당하며 지내왔”으나 성경 번역으로 “우리 글을 보게 해서 각 방면으로 더욱 개화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우리 문화사상에 공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애국심까지도 높여 주었다”고 평가했다.<sup>82)</sup>

### 기념 강연

1960년 4월 7-8일 밤에는 새문안교회에서 김윤경, 최준, 홍이섭, 김우규, 강길수, 황광은 등이 “성서가 한국 근대 문화에 끼친 영향”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윤경은 기독교 전도와 더불어 한글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의 한글 보급에서의 선구적 역할을 강조했다.<sup>83)</sup> 홍이섭은 기독교가 일제 시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복음서가 로마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므로 한국인이 성서의 정신을 받아들여 민족적인 저항 정신을 길렀고 이것이 교회 발전의 기본 조건이었다고 해석했다.<sup>84)</sup> 강길수는 강연자들이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 “① 제 나라 말의 존중 ② 평민의 사상 ③ 비판하는 정신 ④ 자연 과학의 이해 ⑤ 구미 사회와의 접촉” 등을 지적했다고 정리하고 이 모두는 한국 교육에 대한 공헌이라고 보았다.<sup>85)</sup> 황광은은 “성경은 사회사업에 귀중한 자료”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의 고아, 맹인, 병자, 나환자,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정리했다. 김우규는 “한국 현대 소설에 반영된 성서의 영향”에서 긍정적, 비판적, 부정적인 형태 세 가지로 분석하고, 특히 신앙적 과정의 계기로서의 ‘회개’를 취급한 긍정적 작품으로 이종향의 <사도전서>를 다루면서 “흔히 피동적인 감화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것이 피선교지로서의 전통이 빈약한 한국적 크리스천의 신앙”이라고 비판하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교회 앞에까지는 이끌어 올 수 있지만 “신과 대결하는 실존적인 긴장은 불리일으킬 수 없”다고 보면서 “실존의 근원적인 비극을 자각하지 못하고, 단지 심정적인 변화만으로 신앙적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안이한 태도는 이제 청산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sup>86)</sup>

### <성서한국> 기고문과 방송 좌담회

성서 완역 50주년을 기념하여 공회는 전시회를 개최했고 희곡 상연, 성서사전 발간 등을 진행했으며, 가장 큰 과제인 새 번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때 성경 전래 역사를 희곡으로 만든 “만조”의 작가 주태익은 이 작품으로 “한국 기독교의 속이 끓은 내면적 나약성과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타나는 분열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성경 본연의 복음 진리”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sup>87)</sup> 채기은 목사는 새 번역을 요청하면서, “성경은 일반에게 널리 보급시켜 읽게 해야 하며 읽기 쉽게 또는 그 뜻을 빨리 깨닫도록 번역해야 할 것이 원칙이라면 10년 내외에 한 번씩 고쳐 번역할 수는 없더라도 그 민족의 언어생활을 참작하여 그 시대 그 국민에게 감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 사업을 게을리 할 수 없다”<sup>88)</sup>고 했다. 김찬국은 “한국어 성경은 한국인의 손으로 다시 현대인의 감각에 접근될 수

82) 리승만, “문화 사상에 큰 공적,”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3.

83) 김윤경, “성서와 국어: 한글 보급의 선구 역할,”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11.

84) 홍이섭, “성서와 사회 정치: 정치 사회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14.

85) 강길수, “성서와 교육: 기독교 교육에 영향 지대,”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17.

86) 김우규, “성서와 문학: 한국 현대소설에 반영된 성서의 영향,”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25.

87) 주태익, “희곡 滿潮,” <성서한국> 6-2 (1960년 2월): 7.

88) 채기은, “새로운 성경번역이 절실히 요망된다,” <성서한국> 6-2 (1960년 2월): 8.

있도록” 새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9)</sup> 당시 임영빈 총무는 “5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성서가 더 부드럽고 가장 현대적인 표현을 가진 번역문학 가운데서 최고봉에 달하는 번역을 해 보려는 야심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sup>90)</sup>

## 결론

오늘 한글 성경 완역과 출판 제2 회년을 맞아 제1회년 때 강력하게 요청했던 새 번역의 필요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1911년 최초의 한글 성경전서의 출판과 그 번역과 반포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 제1세대(1879-1910)는 황무지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헌신적으로 반포하였으며, 신약 성경을 읽은 교인들은 회개와 부흥으로 한국 교회를 세웠다. 제1세대는 성경전서를 완역 출판하여 일제 강점기를 맞는 제2세대(1910-1945)에게 물려주었다. 1911년부터 약 30년간 제2세대 한국교회는 이 구역본 《성경전서》를 읽고 목상하면서 고난의 식민지 시대를 인내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1938년에 《성경전서 개역》을 완역 출판했다. 해방 이후 3세대(1945-1979)는 새로운 성경 역본으로 《공동번역 성서》(1977)를 만들었고, 4세대(1980-2010)는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을 출판했다. 그러나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대다수 교회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으로 물러나 타협했다. 이 논문의 첫 사진에 있는 이사야 9장의 5절의 번역들을 비교해보자.

1911년 구역: 싸흠흠 쎄에 병당의 제구와 피 몯은 복장이 다 소화하야 불의 섭이 되리라  
 1938년 개역: 어지러이 싸후는 군인의 갑옷과 피몯은 복장이 불에 섭갓치 사라지리니  
 1961년 개역: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몯은 복장이 불에 썰같이 살아지리니  
 1997년 공동번역: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1993년 새번역: 침략자의 군화와 피묻은 군복이 모두 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sup>91)</sup>  
 1998년 개역개정역: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겂옷이 불에 썰 같이 사라지리니

결국 현재 한국교회는 제5세대에게 제2세대가 70여 년 전에 번역 출판한 개역본을 일부 수정해서 주고 있다. 개역본(1938)--그 철자법만 고친 새 맞춤법 개역판(1961)이나 개역개정판(1998) 포함--은 1911년 구역본 성경전서에 비해 더 보수적인 신학과 일본어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번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회는 조상의 유산에 만족하며 7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적 양식을 후세대에게 주고 있다. 오늘 성경전서 완역 출판 제2회년을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만 않은 것은 구태의연한 교회에 식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한국 개신교회는 제2세대에, 특히 1920년대에 정체성과 수구성으로 인해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기독신보>는 1919년 9월에 벌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실었다.

89) 김찬국, “성서 ‘새 번역’에 대한 제언,” <성서한국> 6-3 (1960년 6월): 6.

90) “방송 좌담회: 성서와 우리문화,”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46.

91) 1989년 영어 NSRV: “For all the boots of the tramping warriors and all the garments rolled in blood shall be burned as fuel for the fire.”

혹자의 말에 단순한 신앙만 양성할 것이고 복잡한 지식을 요구할 의미가 없다. 지식이 부하면 신앙이 박하다 하나니, 보라 신앙 30 성상에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착수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냐. 일례로만 말할진대, 구신약전서에 대한 주석 1권도 출세시킴은 제2문제로 하여보자는 관념인들 누가 입에 걸어보거나 있었나 없었나 회상하여 보라.... 이는 지식의 천박한 결과가 아니리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노동자를 賤하게 보지 않고 지식자를 輕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노동자가 없는 세계에는 창작물이 乏할 것이요, 지식자가 없는 사회에는 이해력이 絶하리니, 창작물이 없으면 경제방면이 退縮하여 질 것이요, 이해력이 없으면 변천시대를 두려워 할 따름이리니, 이 두 가지 긴절한 문제를 어찌 몽상에 부치리오.<sup>92)</sup>

사실은 한국 개신교가 첫 세대를 지내고 2세대를 맞이하는 단계에서, 성경전서에 대한 주석서 1권도 만들지 못한 신학 빈곤, 반지성주의를 통렬히 비판했다.<sup>93)</sup> 또한 노동자 문제와 경제 방면에도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도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1920년대에 수구 세력, 소통 부재의 공동체로 비판받았다.

1920년대와 2010년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성경의 번역과 한글 주석서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번역의 종교이지만, 성경 주석까지 번역서에 의존하는 것은 학문적 불성실이다. ‘번역 성서’의 시대는 영원하지만, ‘번역 신학’의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교회는 당분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분발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 누구나 쉽게 읽고 (대중성), 외우기 좋고 (구전 전통), 성경 각 권이 양식과 특성이 살아 있고, 어휘가 통일된 새 성경전서 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번역자를 기르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sup>94)</sup>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전서 새번역》(2001)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1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수고한 구역본 성경전서의 번역 과정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0년 전 번역자들은 일본어에 물들지 않은 세대였고, 이들은 한글다운 한글을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서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번역을 완성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92) 사실, “世界的 二大 勢力에서 脅迫함을 朝鮮教會,” <基督申報>, 1919년 9월 24일.

93) 한국교회는 1930년대까지 중국 선교 백주년 기념 한문 주석서 시리즈를 번역하여 사용했다. 1930년대 초에 아빙돈 주석서 번역에 대한 반대로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를 보여준다.

94) 참고 문헌, “성서 새 번역에 대한 제언: 성서번역은 이렇게,” <성서한국> 6-4 (1960년 12월): 3-5.

## 참고문헌

- 강길수, “성서와 교육: 기독교 교육에 영향 지대,”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16-19.
- 기독신보, “광고,” <基督申報> 1916년 3월 29일.
- , “대영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16년 8월 9일.
- , “대영성서공회와 대미국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17년 6월 1일.
- , “개인소식” <基督申報>, 1917년 11월 28일.
- , “대영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18년 1월 9일.
- , “성서 급 전파의 필요,” <基督申報>, 1918년 5월 15일.
- , “조선 내 성서사업” <基督申報>, 1918년 5월 22일.
- , “社說: 世界的二大勢力에서 脅迫받을 朝鮮教會,” <基督申報>, 1919년 9월 24일.
- , “대영성서공회 광고,” <基督申報>, 1920년 3월 17일.
- 김양선, “성서번역완성50주년기념 한글성서번역사건” <성서한국> 6-2 (1960년 2월): 5-6.
- 김우규, “성서와 문학: 한국 현대소설에 반영된 성서의 영향,”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 24-30.
- 김윤경, “성서와 국어: 한글 보급의 선구 역할,”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11-12.
- 김찬국, “성서 ‘새 번역’에 대한 제언,” <성서한국> 6-3 (1960년 6월): 3-6.
- 대영성서공회, “聖書公會의 關係와 機關說,” <基督申報>, 1916년 5월 10일.
- 독립신문, “잡보,” <독립신문>, 1897년 4월 24일.
- 리승만, “문화 사상에 큰 공적,”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3.
- 매일신보, “잡보,” <每日申報>, 1909년 12월 29일.
- 민휴 (Hugh Miller), “성경 공부의 개요” <基督申報>, 1919년 4월 30일.
- 백낙준, “영원히 켜져 있는 등불,”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8-10.
- 성서한국, “방송 좌담회: 성서와 우리문화,”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42-46.
- ,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피겨가는 성서: 성서 반포 100만권을 돌파,” <성서한국> 6-5 (1960년 12월): 3.
- 양주삼 정태웅 편, 《閑休先生實記》. 대영성서공회 조선지부, 1938.
- 육성득, “첫 한글 성경전서의 출판, 1911: 민족의 복음화는 언어의 복음화에서 시작된다,” <빛과 소금> (2010년 12월): 119-123.
- , “언더우드의 성경번역,” <성서한국> 52-3 (2006 가을) - 53-3(2007년 가을).
- , 《대한성서공회사 역사자료집 3: 밀러 서신》, 대한성서공회, 2011.
-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 대한성서공회, 1993.
- 이만열 류대영, 《대한성서공회사 2》. 대한성서공회, 1994.
- 이만열, 《대한성서공회 역사자료집 2: 켈뮤어 서신, 1900-1905》. 대한성서공회, 2007.
- 이만열, 《언더우드자료집》 전5권,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5-2010.
- 이광수,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 <청춘> (1919년 7월).
-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특히 성서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1985, 409-505.
- 이상현,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 과정,” <동방학지> 151 (2010년 9월): 223-278.
- 주태익, “회곡 滿潮,” <성서한국> 6-2 (1960년 2월): 7.
- 채기은, “새로운 성경번역이 절실히 요망된다,” <성서한국> 6-2 (1960년 2월): 8-11.

- 최상현, “한글 운동에 대하여,” <基督申報>, 1927년 11월 2일.  
 한경직, “영영한 기초”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1년 5월): 5-7.  
 許燁 (Thomas Hobbs), “대영성서공회사업,” <基督申報>, 1917년 5월 23일.  
 홍이섭, “성서와 사회 정치: 정치 사회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성서한국> 한국어성서완역 회년특집호 (1960년 5월): 12-14.

- American Bible Society,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New York: ABS, 1906-1920.  
 Bonwick, Gerald. "The Year's Work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Korea Mission Field* (July 1912): 212-213.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Annual Reports of the Korea Agency, 1911-1921*.  
 ----- "Editorial Report," *BFBS Annual Report for 1903* (London, BFBS, 1903), 446.  
 Cram, William G. "The Bible Society as an Evangelistic Agency," *Korea Mission Field* (April 1912): 120.  
 Féron, S.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불한사전. 필사본, 186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Gale, James S. A Letter to Arthur J. Brown, January 19, 1904.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Correspondence and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Microfilm reel #280)  
 -----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S and Canada, 1909.  
 ----- "Personal Annual Report, June 1910"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Correspondence and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Microfilm reel #285, vol. 244.)  
 ----- "Bible Translation," *Korea Mission Filed* (January 1917): 6-8.  
 Hobbs, Thomas. "The Colporteur as a Preacher,"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16): 273.  
 Jones, George H. "Translating the Bible in Korea," *Worldwide Missions* (May 1903): 4-5.  
 ----- *The Bible in Korea or the Transformation of a Nat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14.  
 Korea Mission Field. "Notes and Personals," *Korea Mission Field* (March 1911): 66.  
 McEachern, J. "A Colportage Tour," *Korea Mission Field* (September 1913): 249-250.  
 McKenzie, Frederick A.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York: F. H. Revell, 1920.  
 Miller, Hugh. "Scripture Distribution," *Korea Mission Field* (Oct. 1911): 283.  
 ----- "Colportage," *Korea Mission Field* (May 1914): 137-138.  
 Oak, Sung-Deuk, "North American Missionaries' Understanding of the Tan'gun and Kija Myths of Korea," *Acta Koreana* 5:1 (January 2002): 51-73.  
 Reynolds, William R.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Korea Review* (1906): 165-180.  
 -----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Korea Mission Field* (April 1906): 103-104.  
 ----- "How We Translated the Bible into Korean," *Union Seminary Magazine* XXII (1910-1911): 292-303.  
 Underwood, Horace G. "Bible Translation"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11): 296-297.  
 Vesey, F. G. "Korean Vignettes," *Bible in the World* (August 1912): 242.